

추미애 “검찰 권한 분산·법무부 탈 검찰화”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울산시장 선거개입
검찰개혁 방안 놓고 격돌
출판비 횡령 의혹 등 해명
법무부 인사제도 혁신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가장 당파적 정치를 했던 추미애 의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노골적인 관권선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삼권분립도 없고 오로지 ‘문재인 황제폐하’만 있다”며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데,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수사팀을 해체할 인사권을 갖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참모들이 알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 때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사전 논의로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울산시장 공천은 여러 논의 과정과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게 명백한데, 이런 식의 야당의 정치공세는 허위주장이고 마타도어”라고 맞박았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어느 순간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사건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사건이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공수처를 막아선다면 이런 검찰의 비위를 비호하고자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적을 높였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청와대의 ‘공천 하명’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해 단수 후보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정된 것으로, 청와대의 개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당 대표였던 추 후보자는 “당헌·당규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수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2인 이상 후보가 있는 경우 자질이나 능력, 경쟁력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면 단수 후보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또 “송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엇 때문에 진행된다고 보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청와대의 개입 여지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수처 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또 공수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에 대해

총선 라운지

김해경 “지역 발전 위해 새 민간 전문가 필요”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해경 광주동남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깨끗하고 역량 있는 새로운 민간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동구에서 45년간 동고동락하며 살아왔고 광주은행에서 일하며 금융 전문가로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아 왔다”고 말했다.



다. 또 “남녀 성차별이 극히 보수적인 금융기관에서 행원으로 입사한 지 30년 만에 유리전장을 뚫고 광주은행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됐다”며 “기업에서 체득한 원인의 상생 문화처럼 정치도 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협치, 약자와 소수를 대변하는 상생의 정치문화를 일구겠다”고 강조했다.

황순영 “부동산 투기 근절·서민 주거권 보장”

광주 복구를 출마

황순영 정의당 광주시당 여성위원장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광주 복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안전하고 평등한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누구보다도 일하는 사람,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삶을 잘 알고 있다”며 “양육의 책임을 여성 혼자 떠안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사무위원, 국민참여당 광주시당 여성위원장, 정의당 광주 북구위원장 등을 지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함평군수 보궐선거 과열 우려

민주 예비후보 6명 공천 경쟁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함평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 5~6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경쟁에 뛰어들면서 지지자들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상의 민주당 도당 부위원장장은 지난 7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보궐선거 출마 행보를 본격화했다.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도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분열과 반목의 지역정치를

청산하고 따뜻한 함평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며 함평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했다. 의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이 우려되지만 지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지다. 전남도의회 임용수 도의원도 군수 출마를 검토하며 보궐을 넓히고 있다. 이외 김성호 전 전남도의원도 김성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위원장도 함평군수 보궐선거를 위한 민주당 공천을 노리고 있다. 전 KBS PD 출신인 정두승씨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정세균 “소득세 탈루 의혹, 청문회서 소명” 하태경 “다음달 5일 전 바른미래 탈당”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30일 야당이 제기한 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청문회라는 것이 의혹이 있으면 그런 것을 확인 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매년 카드사용·기부금액이 소득을 웃돌았다면서 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는 ‘싱크탱크 후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 재임 시절인 2018년 4월 자신의 싱크탱크 격인 재단법인 ‘국민시대’에 5000만원을 출연한 사실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누락했다가 최근 총리 지명 이후 뒤늦게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정 후보자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원래 나는 공수처에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고만 답했다. /연합뉴스

“새 보수당 창당 준비 완료”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30일 “새로운보수당의 내용적 창당이 완료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하 창준위원장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8일 창준위 발기인대회를 했고, 22일 만에 창당 요건인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이날까지 경남·대구·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등 7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하 창준위원장장은 “창당대회 마친 사·

당이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신고필증을 받을 것이고, 1월 5일 전에 저희 탈당이 완료될 것”이라며 “1월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면 형식적 창당도 완료된다”고 밝혔다. 새로운보수당에는 하 창준위원장을 비롯해 유승만·오신환·유 의동 의원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과 가운데 바른정당계 의원 8명이 참여 중이다. 이들이 탈당해 창당하면 새로운보수당은 의석수 8석의 원내 제4당이 된다.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는 28석에서 20석으로 줄어든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70%) 20억5천1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8 토지 : 1403.6㎡(424.6평) 건물 : 8545.06㎡(2584.9평) 지하2층 지상8층 **감정가 89억6천7백만원, 최저가 89억6천7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북구 중흥동 704-9 토지 : 662㎡(200.3평) 건물 : 4555.58㎡(1378.1평) 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 41억9천8백만원, 최저가 41억9천8백만원**
- 근린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토지 : 607㎡(183.618평) 건물 : 762.51㎡(888.809평) 지하1층 지상3층 곡성온천 **감정가 6억9천3백만원, 최저가(70%) 4억8천5백만원**
- 주 택** 광주 동구 계림동 570-6 토지 : 218㎡(65.9평) 건물 : 80.39㎡(24.3평) **감정가 2억4천1백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최저가 (70%) 7억2천2백6십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1천8백5십만원**
- 아 파트** 광주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6차 42평 **감정가 6억6천8백만원, 최저가 (70%) 4억6천7백6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